

중동권 공관장(13개국) 접견 다과회 중 말씀

중동은 우리에게 소중한 이웃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런 자리 마련할 수 있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전설처럼 느껴지는 역사를 생각하면 항상 중동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매우 열정적이고 웅장한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 초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역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기름이 우리 경제의 결정적 요소가 되고, 70~8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오일쇼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동은 한국에서 생존의 조건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웃이라는 절실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70년 이래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건설 사업으로 중동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동붐’ 이라 말합니다. 중동 건설업과 건설노동자의 진출은 우리 경제성장의 두 번째 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중동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높은 지역이지만 정치적인 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 관계도 타 지역보다 낮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 한국정부는 이라크 평화 재건 지원부대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아마 이후 우리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이라크와 중동을 바라보면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상호관계가 우호적으로 증진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많은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대표하는 국민들이 한국군대를 바라보는 인식도 걱정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정부 입장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돕자는 목적으로 가고 있고,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